

【논 문】

근대 일본 육군의 ‘獨斷專行’과 만주사변*

심 호 섭**

┆ 차 례 ┆

1. 머리말
2. 독단전행 강조의 군사적·사회적 배경
3. 독단전행의 의미 변질과 만주사변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원래 군사적 의미였던 ‘獨斷專行’이 군의 독선과 독주를 뜻하는 정치적 의미로 변질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을 둘러싼 내외적 상황에 의해 일본 육군의 독단전행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첫째, 지휘개념으로서 독단전행이 강조되었다.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교훈인 장기전에 대한 준비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기결전을 군사전략의 기본으로 삼아 포위 섬멸전과 같은 기동력 중시의 작전형태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지휘관에게 신속한 상황판단과 임기응변 등 독단전행이 요구되었다. 둘째, 독단전행의 주체가 확대되어 병사들에게도 전투에서의 독단전행이 요구되었다. 그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전술의 변화, 즉, 소개전투의 도입에 의해 전투 단위가 축소되면서 각각의 전투원들의 자발성과 같은 독단전행이 요구되게 된 데에 있다. 또한 일

* 본 논문은 심호섭, 『日本陸軍における『獨斷專行』の変遷』, 早稲田大學 政治學研究科 修士課程 論文, 2011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단전행의 의미의 변질에 있어서 만주사변의 결과가 큰 획을 그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독단전행이 변질되어 가는 사례로 제시한 만주사변에서의 관동군과 조선군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 육군사관학교 강사

반사회에서는 자유주의 풍조가 만연해져, 군대에서 더 이상 절대적 복종을 병사들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를 대신하여 자각, 즉, 이해있는 복종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독단전행의 정신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종래에 독단전행은 절대적 복종과 공격정신으로 이루어진 군인정신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복종의 성격은 절대적 복종에서 자발적 복종으로 변화하였지만, 결국 육군의 자발적 복종 정책은 정착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군기를 유지하려 하였으며, 행동의 취지가 공격정신에 일치하기만 한다면 독단전행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만주사변에 있어서 조선군의 독단전행이 찬사를 받게 되면서, 독단전행은 복종에 구속되기 보다는 결과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상관의 의도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복종과 모순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던 종래의 독단전행의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공격정신의 강조와 결과 중시의 풍조가 더해지면서 독단전행의 변질이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독단전행, 일본육군, 만주사변, 일본육군의 군사전략, 전술, 지휘개념

1. 머리말

흔히 근대 일본의 ‘獨斷專行’은 육군의 독주와 팽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軍國主義를 주도한 것이 육군의 독단전행이었다. 독단전행에 따라 관동군과 조선군의 만주사변이 발발하였고, 이로부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독단전행은 군부 독주와 하극상의 요인으로 보고 그 정치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¹⁾

그런데 일본 육군의 독단전행은 본래 지휘사상의 하나였다.²⁾ 군사적 개

1)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藤原彰, 1987, 『日本軍事史』(上), 日本評論社 ; 大江志乃夫, 1982, 『昭和の歴史』(3) 天皇の軍隊, 小學館 ; 飯塚浩二, 1991, 『日本の軍隊』, 岩波書店.

2) 前原透, 1994, 『日本陸軍用兵思想史』, 天狼書店 ; 戸部良一, 1998, 『逆説の軍隊』, 中央公論社 ; 白石博司, 2001, 「滿州事変における關東軍の固有任務とその解釋・運用問題」 『軍事史學』37권

념이 군부의 독주와 함께 군국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념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독단전행 개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질되었는지 자세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육군에서 독단전행을 강조한 군사적·사회적 배경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大正 테모크라시'를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단전행의 의미를 육군 수뇌부가 어떻게 수용하였고, 어떠한 논의를 통해 그 의미가 변질되어 만주사변으로 나갔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독단전행 강조의 군사적·사회적 배경

1)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독단전행

제1차 세계대전은 장기간의 소모전이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국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전쟁의 양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觀戰武官을 영국과 프랑스로 파견해 각종 전투를 참관하도록 하였고, 육군 성 내에 臨時軍事調査委員을 설치해 이 전쟁을 연구하도록 하였다.³⁾ 나아가 전후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교훈을 탐구하고,⁴⁾

2·3합병호, 191~207쪽.

특히 줄고, 「日本陸軍における『獨斷專行』の変遷」의 1,2장에서는 독단전행의 도입과 확립에 대해 밝혔다. 이를 통해 볼 때 군사적 의미의 독단전행은 먼저, 상급지휘관의 의도 안에서 명령의 실시에 대해서는 하급지휘관인 현지지휘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수행하는 지휘 개념의 성격을 지녔다. 다음으로, 개개인의 장병들에게 전투에서 단지 수동적으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전투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본문에서는 군의 지휘사상으로서의 독단전행으로 부르기로 한다.

3) 임시군사위원은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제도, 무기, 전술 등 군사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海外差遣者報告』, 『臨時調査委員月報』 등을 발간,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4) 참모본부에서는 전황과 전훈(戰訓) 등에 관한 기사를 『偕行社記事』에 게재하였으며, 『歐洲戰爭叢書』, 『歐洲戰爭叢書特号』 등을 발간하였다.

장기소모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⁵⁾

그런데 다수의 고위 군인은 일본의 국력이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장기소모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가령 1918년 육군 참모차장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는 “우리의 國情 그리고 국민성은 지금 유럽의 전쟁과 같이 장기에 걸친 작전에는 불리한 것이 확실하며, 현재의 국력은 장래의 적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세를 점하는 데 부족하다. 그러므로 일본은 장기·소모전을 지양하고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⁶⁾

이러한 인식은 1919년과 1923년에 개정된 『帝國國防方針』에 반영되었다. 이를 보면 육군 군사전략의 방침은 “선제의 리를 점해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적보다 먼저 신속하게 희망하는 병력을 한 지점으로 집중시켜 적의 아전군을 격파하는 것을 작전방침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지켜본 일본은 장기소모전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를 직접 준비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단기결전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육군은 작전술의 방법으로 기동전과 포위섬멸전을 연구하였다. 특히 ‘슐리펜 계획’과 탄넨베르크 전투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되었다.⁷⁾ 이러한 가운데 일본 육군에서 강조한 지휘개념이 독단전행⁸⁾이었다.

우선 1918년 제정된 일본 육군의 최상위 교범인 『統帥綱領』을 보면 “지휘의 요결은 부하군대의 장악을 확실하게 하고 그 위에 하급지휘관에 대한 독단활용의 여지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⁹⁾ 또한 “機先을 잃지 않기 위해 유사시 변화하는 각종 정황에 응해 군대는 지휘관의 의도 안에서 적극

5) 山田朗, 1997, 『軍備擴張の近代史：日本軍の擴張と崩壊』, 吉川弘文館, 52~53쪽; 加藤陽子, 2007, 『戦争の日本近代史』, 講談社現代新書, 224쪽.

6) 田中 陸軍中將, 1916, 『歐洲戰爭ノ與ヘタル戰略戰術上ノ教訓』 『偕行社記事』제512호, 5쪽.

7) 參謀本部 編, 1920, 『開戰前における陸軍の作戰計畫とマルス開戰の研究』 『歐洲戰史叢書』제34호; 參謀本部 編, 1921, 『殲滅戰』 『歐洲戰史叢書』 특호11호 참고.

8) ‘任務命令’이라고도 하며, 상급지휘관의 의도와 명령의 목적과 일치하게 수령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그 명령을 실시하는 것이다.

9) 陸軍省, 1918, 『統帥綱領』, 『指揮』.

적으로 행동에 옮겨 戰機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 일본군의 작전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휘관의 독단전행을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1920년 개정된 『陣中要務令』(1920)에서 역시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명령의 실시에는 독단을 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전투에서 그 변천을 헤아리기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령자는 항상 발령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국을 명찰하여 정황의 변화에 응해 스스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독단전행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¹¹⁾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에서는 지휘관의 독단전행을 중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기결전을 위한 기동전 및 포위섬멸전과 무관치 않았다.

각급지휘관자들이 일일이 고급지휘관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면 대부분 시기를 상실하게 된다. 고급지휘관도 포위하는 경우에는 전황에 따른 복잡한 동작을 최초부터 예상하고 이에 대해 상세한 명령을 일일이 하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변하는 정황에 대해 일일이 명령을 내려 행동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부하지휘관들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¹²⁾

포위섬멸전은 빠르고 효과적인 기동으로 적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포위섬멸전을 위해서는 “고급 지휘관이 적절히 달성할 수 있는 기도를 부하에 명시하여 실시의 세부까지 각급 지휘관의 독단”¹³⁾을 신뢰할 수 있어야 했다. 고급 지휘관은 각급 지휘관의 독단전행을 인정하여

10) 앞의 책.

11) 陸軍省, 1924, 『陣中要務令』, 『綱領』.

12) 參謀本部 編, 1921, 『殲滅戰』, 『歐洲戰史叢書』특호11호, 27쪽.

13) 參謀本部 編, 1921, 앞의 책, 27~28쪽.

현장에서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현장지휘관 역시 “고급지휘관의 의도를 忖度하여 獨斷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했다.¹⁴⁾ 가령 『戰鬪綱要編纂理由書』(1929)를 보면, “포위섬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군대의 기동에 탁월함과 각급지휘관의 기선에 맞는 독단에 있다¹⁵⁾”고 하였듯 포위섬멸전의 수행을 위한 현지 지휘관의 독단전행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본래부터 독단전행은 지휘관의 재량권만 아니라 병사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¹⁶⁾ 하지만 러일전쟁 이후 병사의 독단전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러일전쟁의 경험 속에서 병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고, 장교의 강력한 통제가 선호되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며 개별 전투원의 전투능력이 중시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21년의 「步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의 취지를 참고할 수 있는데,¹⁸⁾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

1. 화기의 화력 및 위력을 고려한 소개대형 채용
2. 부대의 기술적 기동력의 향상
3. 각급 지휘관이하의 독단전행의 강조와 하사관 이하의 책임에 대한 자각 및 능력의 향상 요구
4. 운동전과 진지전의 조화
5. 야간전투의 중시

위의 5조항 중 3이 주목된다. 병사의 ‘자각 및 (전투) 능력의 향상’이 다시 요구되었고 있었던 것이다. 개정판 『步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1923)에서

14) 參謀本部 編, 1921, 앞의 책, 28쪽.

15) 參謀本部, 1928, 『戰鬪綱要編纂理由書』, 偕行社, 2쪽.

16) 구체적인 내용은 심호섭, 석사논문, 16~19쪽 참조.

17) 앞의 책, 29~32쪽 참조.

18) 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진술전의 교훈에 대해서는 參謀本部, 1925, 『歐州戰爭叢書』, 「世界大戰/戰術의觀察」(1~5卷)를 참고할 것.

19) 教育總監部, 1920, 『步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 偕行社, 2~3쪽.

“최근 전쟁의 교훈과 종래의 경험”을 살려서 “보병의 전투방식에 개혁을 촉진한다”고 밝혀 두었듯,²⁰⁾ 이와 같은 변화는 ‘최근 전쟁’ 즉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교훈이었다.²¹⁾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위의 5조항 중 1과 2가 관심을 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 육군의 기본단위는 중대였다. 각 중대가 밀집대형을 갖추어 이동하고, 전투가 진행되면 산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백병돌격으로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였다(산개전투).²²⁾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무기 특히 화기의 발달로 중대 단위의 이동이 어려워졌다. 화기의 위협을 피해 작은 단위의 전술행동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소개전투였다.

소개전투란 소총·경기관총·유탄수로 구성된 각 분대를 최소단위로 이동·사격·돌격하는 전투방식이다.²³⁾ 전투의 기본단위가 중대에서 분대로 축소된 것이다. 가령 『歩兵操典草案』(1920)을 보면 “소개대형은 포화에 의한 손실을 줄이면서 적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실전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²⁴⁾ 이어서 개정된 『歩兵操典草案』(1923)을 보면 ‘소개전투’의 명칭이 정식으로 채용되어 소개전투가 “보병전투의 주요한(전투) 방식으로 적 화력의 효력을 감소시켜 아군의 화력과 돌격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고 하여 새롭게 보병전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²⁵⁾

이러한 소개전투에서는 소규모 전투단위의 행동이 중시되었다. 그러므로 전투의 주체가 기존의 중대에서 소대 및 분대로 세분화되어 갔다. 『歩兵操典草案』(1923)에 있는 항목에는 새로운 ‘소대교련’과 ‘분대교련’이 추가되었

20) 앞의 책, 12쪽 참고.

21) 물론 이 역시 “1. 소개전투의 방식을 채용할 것 2. 하급지휘관 이하의 협동과 독단을 한층 중시할 것”이라고 하여 ‘소개전투’의 요구와 각자의 독단전행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總育總監部, 1923, 『歩兵操典素案改正理由書』, 偕行社, 3쪽 참조.

22) 總育總監部, 1923, 『歩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 偕行社, 33쪽.

23)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1969, 『戰史叢書 關東軍』(1), 朝雲新聞社, 34쪽.

24) 陸軍省, 1920, 『歩兵操典草案』, 88쪽.

25) 陸軍省, 1923, 『歩兵操典草案』, 94쪽.

고, 이에 따라 소대와 분대의 역할이 격상되었다. “소개전투에 있어서 소대는 소대장 통괄 하에 그 소총분대와 기관총분대의 사격, 운동과 돌격을 밀접하게 연계시켜야 한다”라고 하거나,²⁶⁾ “소개전투에 있어서는 분대는 火戰을 실행한다”고 하여 분대가 독립된 전투단위로 인정받았다.²⁷⁾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 “분대 산개훈련의 주안은 분대를 어떻게 분대장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것인가²⁸⁾”에 모아졌다. 하사관인 분대장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나아가 소개전투를 하는 병사 역시 “전투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위치, 자세, 총의 사용에 대해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고,²⁹⁾ “병졸은 독단을 가지고 사고하여 엄정하게 행동하여 산병으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였듯,³⁰⁾ 병사의 자율성이 다시 부여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돌격의 운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 육군의 돌격은 중대별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최초의 돌격은 일반적으로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³¹⁾ 분대장 이하 병사의 독단적인 행동 역시 충분히 인정되었다. 이처럼 전투 전반에 걸쳐 소규모 전투단위에서의 행동이 중시되며 하사관 이하 병사의 전투능력과 자율성이 중시되었다. 더 나아가, “장래에는 전투 장비의 진보와 함께 더욱더 복잡한 전투양상이 예상되므로,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직무에 따른 독단전행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³²⁾

이상과 같이 제1차 세계대전이 전쟁양상이 장기소모전으로 전개되자 일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단기결전을 채택하였고, 기동전 및 포위섬멸전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각급 지휘관의 재량권이 중시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방식이 소규모 단위로 축

26) 앞의 책, 95쪽.

27) 앞의 책, 96쪽.

28) 앞의 책.

29) 앞의 책.

30) 參謀本部, 1918, 『世界大戰/教訓』 『偕行社記事』 제528권 부록, 44쪽.

31) 陸軍省, 1923, 『歩兵操典草案』, 120쪽.

32) 村岡陸軍少將, 1920, 『衆議院議事録ヲ讀ミテ軍隊教育ニ及ブ』 『偕行社記事』 제548호, 12쪽.

소되며 개별 병사의 자율성 역시 강조되었다. 지휘관과 병사의 독단전행이 두루 부각되었던 것이다.

2) ‘大正 데모크라시’와 독단전행

일본 육군에서 독단전행이 증시된 것은 비단 전략·전술적인 필요에 의해서만은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일본사회의 새로운 풍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大正 데모크라시’라는 새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군의 질서를 유지시켜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함께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육군은 러시아혁명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은 한 장교의 견문이다.

러시아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에 연전연패하였다. 많은 수의 병사들이 전사하였으며, 군대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동시에 통수부에 대한 불신감은 커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도 국민도 반독감정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은 이후로는 병사들은 지금까지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허무함에 사로잡혔고, 식량부족으로 인해 군기의 유지도 어려웠으며, 지휘부에 대한 반발로 2월 혁명에 러시아군의 병사들은 혁명에 참가하게 되었다.³³⁾

일본 육군 장교가 보기에 러시아 군대가 혁명에 가담한 일은 충격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육군 수뇌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의 경우 러시아의 “하사관 병졸이 그의 상관과 친하지 않고 냉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내심 원한을 품고 있었고, 불평이 혁명에 접화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듯,³⁴⁾ 혁명의 원인으로서 하사관과 병사의 불만이 누적된 점을 주목하였다. 또한 러시아 군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군대와 국민의 관계도 소원하였다고 이해하였다.

33) 時乘歩兵少佐, 1918, 「露革命ト其軍隊」 『偕行社記事』제531호, 32쪽.

34) 田中 陸軍中將, 1917, 「露國革命所感」 『偕行社記事』제515호, 2쪽.

러시아 군대는 “군대와 국민의 관계가 냉혹한” 군대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국민의 불신이 ‘하사와 병사’로 이어졌고, 군대의 붕괴로 나타났다고 파악한 것이다.³⁵⁾

이처럼 일본 육군에서는 장교와 병사의 이질감, 군대와 국민의 괴리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데모크라시’ 풍조 속에서 국민의 자각과 이해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종래처럼 병사에 절대적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병사 개인에 요구된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으면 명령에 따르게 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종은 마음속으로 이해되는 희생적 관념의 발로이다”³⁶⁾고 여겨져 복종의 기초로서 자각과 이해가 강조되었다.

예컨대 육군성 군무국장 스가노 히사이치(菅野尙一)는 “병졸을 대우할 때에는 그들을 武器 또는 노예처럼 대우 할 것이 아니라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하였다.³⁷⁾ 또한 육군대학 교관 혼마 마사하루(本間雅晴)는 “盲從, 屈從으로 구축된 군기는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일지라도 폭풍에 버틸 수 없는 기초가 취약한 것이다³⁸⁾”로 맹목적 복종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참모본부 제 1부장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역시 “군기는 위력이 있으며 게다가 압제적이다고 이미 100년 전 ‘조미니’가 이야기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露軍의 해체가 이를 증명한다. 理解에 기반을 둔 군기의 성립이야말로 군에게 요구되는 것이다”³⁹⁾고 기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군대의 기반은 국민에 있다는 전제하에 군대가 사회로부터

35) 앞의 책.

36) 앞의 책.

37) 教育總監部編, 1934, 『精神教育資料 特第3号 精神教育より觀たる軍隊内務』, 259~260쪽.

38) 本間歩兵大尉, 1920, 『思想/變遷ニ鑑ミテ軍紀ト服從トヲ論ス』, 『偕行社記事』제 550호, 43~44쪽. 혼마 대위는 1918년 4월부터 1년 동안 영국에 주재하며 러시아의 상황 등 유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 (秦郁彦編, 2005, 『日本陸海軍總合事典』〔第2版〕, 東京大學出版會, 143쪽 참고.)

39) 宇垣一成, 角田順 校訂, 1968, 『宇垣一成日記』I, みすず書房, 158쪽, 「大正7年3月の條」.

고립되지 않도록 국민과 군과의 괴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즉, 舉國一致·君民一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예를 들어 우가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군대는 국민을 기초로 성립된다. 따라서 군대가 국민의 실생활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중략...) 군대가 국민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⁴⁰⁾

오늘날의 군대는 국민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중략...) 사회와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⁴¹⁾

이처럼 우가키는 군대와 국민 혹은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개개의 병사에 대한 이해있는 복종과 자각의 요청은 육군의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軍隊教育令』(1920)의 개정 취지는 “자각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⁴²⁾ 또한 『軍隊內務書草案理由書』(1920)에서는 “최근 세계 전역(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통해 볼 때 장래 하급간부와 병졸의 동작에 독단을 요하게 되었으며 하급자의 적극적인 企圖”가 요구된다고 그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⁴³⁾ 이어 개정된 『軍隊內務書』(1921)에서도 “자각 없는 외형뿐인 복종은 어떠한 가치도 없는 것이며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길은 상관의 먼저 스스로 법칙을 준수하고 명령을 존중하여 이를 통해 복종의 길을 제시한다⁴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 육군은 러시아혁명에서 군대의 붕괴를 목격하고, 당시의 ‘데모크라시’ 사조에 조응하여 병사의 ‘자발적 복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병에게 요구된 독단전행은 단순히 전투에 대한 자발성

40) 앞의 책, 300쪽, 「大正9年7月の條」.

41) 田中歩兵中佐, 1921, 「自治」軍隊教育, 『偕行社記事』제560호, 118쪽.

42) 陸軍省, 1920, 『軍隊教育令』, 『綱領』.

43) 陸軍省, 1920, 『軍隊內務書草案理由書』.

44) 陸軍省, 1921, 『軍隊內務書』, 4쪽, 『綱領』.

만 아니라 일반적인 군대생활에서 자주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3. 독단전행의 의미 변질과 만주사변

일본 육군은 창군 이후부터 군인정신 즉 정신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 군인정신은 군대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국력이 약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이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군인정신의 기반은 ‘충성’이라는 절대적 복종에서 유래하는 군기의 유지와 공격정신주의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을 통해 살펴보았듯 기존의 절대적 복종만으로 더 이상 군기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 육군은 ‘자발적 복종’이 ‘데모크라시’ 사조로부터 기인하였고, 그것은 ‘군대 질서의 혼란’을 유발한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예컨대 육군 참모본부 편제동원과장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에 의하면 “육상 다나카의 시책에 대해 우에하라가 항상 트집을 잡고 방해한 한 가지 사례로 군대내무서의 개정 문제가 있다. 소위 다이쇼데모크라시라는 세정에 아부하려는 이 정책은 그 공포에도 반년은 걸렸다⁴⁵⁾”라고 하였다. 陸軍大臣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와 參謀總長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의 의견 대립을 지적한 것인데, 우에하라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된 군대 개혁에 커다란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비단 우에하라만 아니라 일본 육군 수뇌부가 대체로 그러하였다.

교육총감본부부장 오노 미노부(尾野實信) 역시 『軍隊內務書』가 “연약한 교육”과 “유약한 통솔”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였다.⁴⁶⁾ 또한 육군

45) 有末精三, 1982, 『政治と軍事と人事 參謀本部第二部長の手記』, 芙蓉書房.

46) 教育總監部 編, 1934, 『大正十年度參謀會議ニ於ケル口演要旨 尾野教育總監部本部長口演要旨』

대신 아마나시 한조(山梨半造)의 경우 병사들의 자발성을 환기하는 교육에 대해 “직책과 인격존중의 취지를 오해하여 방임으로 빠져 군기를 이완시키고 복종심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로 지적하였다.⁴⁷⁾ 교육총감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 역시 “자각교육의 본지를 오해할 때에는 부하의 방종을 간과하게 되어 결국에는 유약한 교육, 유연한 통솔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⁸⁾

이처럼 『軍隊內務書』(1921)의 공포 직후부터 육군 수뇌부는 ‘자발적 복종’ 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불신감이 팽배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자발적 복종’ 정책이 원만히 정착되기 어려웠다.⁴⁹⁾ 1928년 교육총감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는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필승의 신념은 전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중략...) 하급 간부 또는 병졸의 신념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며 유해무익의 장비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략...) 전쟁의 승패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정신적 요소와 훈련상의 성과이다. 장차 이것이 우월하다면 다른 물질위력을 압도하여 승리의 길을 달성할 수 있다.⁵⁰⁾

무토 노부요시는 ‘데모크라시’ 사조로부터 오는 군대내의 동요를 막고 열등한 물질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승의 신념이 있다면, 다른 물질위력을 압도해 승리의 길을 달성할 수 있다

(1921년 4월27일 教育總監部에서), 『精神教育資料特第3号 精神教育』觀たる軍隊內務』, 460~461쪽.

47) 앞의 책, 『大正十一年度師團長會同席ニ於ケル口演要旨 陸軍大臣口演要旨』(1922년 4월6일 陸軍省에서), 463~464쪽.

48) 앞의 책, 『秋山教育總監口演要旨』(1922년 4월11일 教育總監部에서), 464~465쪽.

49) 실제 부대의 운영 결과 ‘자발적 복종’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타이완군사령관 福田雅太郎의 경우 “군대내무서 개정의 결과는 명백하게 불량하며 이 내용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당시 육군성의 정책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누가 되어, 본서의 정신을 오해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였다. 1921년11월4일자 參謀本部앞 福田雅太郎 書簡, 上原勇作關係文書研究會 編, 1976, 『上原勇作關係文書』, 東京大學出版會, 397쪽.

50) 河辺正三, 1980년, 『日本陸軍精神教育史考』, 原書房, 86쪽에서 재인용.

고 본 것이다. 가령 『歩兵操典』(1928)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적 요소를 강조한 결과 무형적 요소가 경시되고 말았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우키기 군축’에 의해 육군의 근대화가 시도되었지만 일부의 부대를 제외하고 ‘근대화의 목표’조차 달성되지 못하고 있었다.⁵¹⁾ 물질적 전력 역시 충분히 강화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전력에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없었던 육군은 정신력의 강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육군에서는 攻撃精神의 강조를 통해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歩兵操典』(1928)에서는 “필승의 신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戰鬪綱要』(1929)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등 공격정신주의가 한층 더 강조되었다. “훈련에 필승의 신념을 강하게 하여 군기를 엄정하게 하여 공격정신이 충만한 부대는 물질적 위력을 배가시켜 전투할 수 있게 된다”로 평가하였다.⁵²⁾

공격정신은 충군애국의 정신에서 나온 군인정신의 정화이며 확고한 군대 사기의 표출이다. (...중략...) 승패의 수는 반드시 병력의 다과로부터가 아니라 정신에 있다. 공격정신이 뛰어난 군대는 반드시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이길 수 있다.⁵³⁾

공격정신만 있으면 대군을 쳐부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개정된 『統帥綱領』(1928)에서 역시 장기·소모전에 대응할 수 없는 취약한 일본의 국력상 작전에 있어서는 “공세를 통해 신속하게 적군의 전력을 격멸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신속한 집중 및 기동과 과감한 섬멸전”을 행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그것과 함께 “통수의 본지는 항상 전력을 충실히 하여 이를 교묘하게 적군에 지양시켜 그 세를 통해 무형적 위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데 있다”고 여겨졌고,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승패의 주요인은 변함없이

51)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1969, 『戰史叢書 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267~268쪽; 川島正, 1994, 『軍縮の功罪』, 近代文芸社, 154~155쪽 참고.

52) 陸軍省, 1928, 『歩兵操典』, 2쪽.

53) 앞의 책, 5쪽.

정신적 요소에 있다”고 하여 공격정신을 비롯한 무형전력이 강조되었다.⁵⁴⁾

이와 같은 공격정신의 강조는 독단전행의 의미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절대적 복종이나 ‘자발적 복종’이라는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상의 성과가 무엇보다 우선시되며 독단전행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미 교육총감본부부장 오노 미노부(尾野實信)는 1920년 『보병조전』의 개정에서 “종래의 獨斷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먼저 상급자의 의도에 투합되는 것을 第一로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의 판단력에 의해 결심을 실행에 옮겨, 그 결과가 상급자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⁵⁵⁾ 처음부터 상급자의 의도 범위 내에서 행하였던 기존의 독단전행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먼저 임무수행자의 판단으로 우선 행동에 옮긴 다음, 그 결과가 상급자의 의도에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1927년 육군대학교 교관 이시다 야스마사(石田保政) 역시 “자기의 임무 범위를 초월하여 大所高所에서 대국을 달관하여 독단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존탁하는데 그치지만 말고 자신을 상급지휘관의 위치에 놓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⁵⁶⁾”고 하였듯 자기의 임무를 넘는 적극적인 독단전행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독단전행의 의미 변질은 공격정신의 강조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었다.

가령 『戰鬪綱要』(1928)을 보면, “유사시 변화하는 각종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 동작으로 대처하여 전기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독단전행은 “적의 의표를 찌르는” 수단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필승’을 얻는 공격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다.⁵⁷⁾ 나아가 『統帥綱領』에서 독단전행은 지휘관의 공격정신, 적극성을 표현하였다. “무형적 위력을 최고

54) 參謀本部, 1928, 『統帥綱領』, 1쪽.

55)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1969, 『戰史叢書 關東軍』(1), 朝雲新聞社, 33쪽.

56) 石田保政, 1937, 『歐洲大戰史の研究』(第二卷), 陸軍大學校將校集會所, 127쪽. 「第二篇 獨斷專行ニ關スル若干ノ所見」참고. 이 책은 “본 편은 1927년 육대 2학년생에게 강의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1927년의 육군대학교 강의내용이다.

57) 陸軍省, 1929, 『戰鬪綱要』, 3~4쪽.

도로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독단전행은 ‘통수지휘의 묘’, ‘운용의 묘’, “적군의 의표를 찌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의미가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⁵⁸⁾

이처럼 공격정신이 강조되는 가운데 독단전행은 명령이 닿지 않는 부분을 혹은 명령을 보완하는 본래의 의미에 더하여져, 공격정신을 실현하는 수단 및 방법으로서 ‘통수지휘의 묘’라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의 독단전행은 절대적 복종에 바탕을 둔 엄격한 군기에서 상급자의 의도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에 의해 복종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절대적복종과 공격정신으로 구성되어있던 군인정신 하에서 운영되어왔던 독단전행은 변질되었다. 새로운 개념의 복종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정신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독단전행에는 복종보다도 공격정신에 일치하기만 한다면 합당한 독단전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931년 만주사변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정부의 불확대방침을 무시한 關東軍의 ‘독단전행’과 천황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행한 朝鮮軍의 ‘독단월경’은 대명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원래라면 군법회의에서 처벌받아야 할 행위였다. 처음 하야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육군 내에서도 “金谷龍三(가나야 한조)참모총장은 과장에게 하야시 사령관의 독단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며 불만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그 행위가 ‘大權干犯’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⁵⁹⁾

그러나 결국 그 행위가 “위의 명령이 없는 경우 어떤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나 상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따라 결행”한다.⁶⁰⁾ “독단출병은 대권간범이 아니다⁶¹⁾”고 한 것처럼 독단전행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당시 저명한 사회평론가인 이시바시 텐잔(石橋湛山)조차 “군사령관의 독단전행

58) 參謀本部, 1928, 『統帥綱領』 참고.

59) 稻葉正夫, 1972, 『朝鮮軍の獨斷越境問題経緯』〔含參謀本部記録の翻訳〕, 『軍事史學』제7권4호, 49쪽.

60) 鈴木一編, 1968, 『鈴木貫太郎自伝』, 253~254쪽.

61) 稻葉正夫, 앞의 책, 54쪽

은 기선을 잡는 조치로서 어쩔 수 없었다⁶²⁾”로 하였다. 이제 언론과 일반사회에 있어서도 조선군의 독단월경을 기선을 잡는 정당한 독단전행으로서 용인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만몽문제의 해결이라는 국가의 목적에 합당했다는 것으로 관동군의 행동과 조선군사령관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의 결단은 독단전행으로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칭송을 받게 된 것이다.

(만주사변 이후) 중앙기관은 (해외파견군대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잃게 되어 독단의 오용을 방임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중략...) (독단전행은) 하극상의 풍조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⁶³⁾

태평양전쟁 이후 가와베 마사카즈(河辺正三) 육군대장의 회상이다. 이제 독단전행의 의미는 실행자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명령위반의 형태인 ‘擅恣’로 변질되고 말았다.

4. 맺음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에서는 독단전행이 강조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소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은 국력의 문제로 단기결전을 군사전략의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그 결과 기동전과 포위섬멸전을 중시하였고, 지휘관의 독단전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개전투’라는 전술상의 필요상 병사들에게 전투에 대한 자발성을 의미하는 의미의 독단전행을 강조하였다. 그런 한편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절대적 복종만을 강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병사의 ‘자발적 복종’을

62) 「內閣の欲せざる事變の擴大」(『東洋經濟新報』1931년 9월 26일호 「사설」),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會 編, 1971, 『石橋湛山全集』(第八卷), 東京經濟新報社, 20~21쪽.

63) 河辺正三, 1980, 『日本陸軍精神教育史考』, 原書房, 96쪽.

추구하였다.

그러나 육군 수뇌부는 ‘자발적 복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그 때문에 주로 공격정신을 강조하면서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공격정신만 일치한다면 독단전행으로 인정받는 풍도가 조성된 것이다. 특히 만주 사변에 있어서 조선군의 ‘독단월경’이 칭송받으며 이제 독단전행은 복종에 규정받는 것에서 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즉 상관의 의도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으로 복종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독단전행의 정신이 붕괴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격정신의 고취와 결과 중시의 풍도가 함께 작용하면서 독단전행의 변질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군국주의가 일본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내몰게 되었다.

참고문헌

- 陸軍省, 1918, 『統帥綱領』.
 _____, 1920, 『歩兵操典草案』.
 _____, 1920, 『軍隊教育令』.
 _____, 1920, 『軍隊內務書草案理由書』.
 _____, 1921, 『軍隊內務書』.
 _____, 1923, 『歩兵操典草案』.
 _____, 1924, 『陣中要務令』.
 _____, 1928, 『歩兵操典』.
 _____, 1929, 『戰鬥綱要』.
 參謀本部, 1918, 「世界大戰ノ教訓」 『偕行社記事』제528권 부록.
 參謀本部 編, 1920, 「開戰前における陸軍の作戰計畫とマルヌ開戰の研究」 『歐洲戰史叢書』 제34호.
 _____ 編, 1921, 「殲滅戰」 『歐洲戰史叢書』 특호11호.
 _____, 1925, 『歐洲戰爭叢書』, 「世界大戰ノ戰術的觀察」(1~5卷).
 _____, 1928, 『統帥綱領』.
 _____, 1928, 『戰鬥綱要編纂理由書』, 偕行社.
 教育總監部, 1920, 『歩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 偕行社.
 _____, 1923, 『歩兵操典素案改正理由書』.
 _____ 編, 1934, 『精神教育資料 特第3号 精神教育より觀たる軍隊內務』.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1969, 『戰史叢書 關東軍』(1), 朝雲新聞社.
 _____, 1969, 『戰史叢書 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村岡陸軍少將, 1920, 「衆議院議事録ヲ讀ミテ軍隊教育ニ及ブ」 『偕行社記事』제548호.
 時乘步兵少佐, 1918, 「露革命ト其軍隊」 『偕行社記事』제531호.
 田中 陸軍中將, 1917, 「露國革命所感」 『偕行社記事』제515호.
 本間步兵大尉, 1920, 「思想ノ變遷ニ鑑ミテ軍紀ト服從トヲ論ス」 『偕行社記事』제550호.
 田中步兵中佐, 1921, 「自治ト軍隊教育」 『偕行社記事』제560호.
 宇垣一成, 角田順 校訂, 1968, 『宇垣一成日記』Ⅰ, みすず書房.
 有末精三, 1982, 『政治と軍事と人事 參謀本部第二部長の手記』, 芙蓉書房.
 上原勇作關係文書研究會 編, 1976, 『上原勇作關係文書』, 東京大學出版會.
 河辺正三, 1980년, 『日本陸軍精神教育史考』, 原書房.
 川島正, 1994, 『軍縮の功罪』, 近代文芸社.
 石田保政, 1937, 『歐洲大戰史の研究』(第二卷), 陸軍大學校將校集會所.
 稻葉正夫, 1972, 「朝鮮軍の獨斷越境問題経緯」 [含參謀本部記錄の翻刻], 『軍事史學』제

7권4호.

鈴木一 編, 1968, 『鈴木貫太郎自伝』.

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會 編, 1971, 『石橋湛山全集』(第八卷), 東京經濟新報社.

山田朗, 1997, 『軍備擴張の近代史：日本軍の擴張と崩壊』, 吉川弘文館.

加藤陽子, 2007, 『戦争の日本近代史』, 講談社現代新書.

■日文要約■

近代日本陸軍の獨斷專行と滿州事變

沈 浩 燮

本論では、‘獨斷專行’の意味が変化していく過程を考察する。第一次世界大戦後、軍を取り巻く様々な状況によって、獨斷專行は以前にも増して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第一に、指揮概念としての獨斷專行がより強調された。陸軍は、長期戦に備えにはあまり熱心ではなく、むしろ短期決戦を軍事戦略の基本に据え、そして、機動力重視の作戦形態を維持した。そのため、現場の高級指揮官には素早い状況判断と行動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り、高級指揮官の獨斷專行が一層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第二に、獨斷專行の主体が拡大され、兵士レベルでの獨斷專行が強調された。その背景には、第一次世界大戦後の戦術の変化、すなわち疎開戦闘の導入により戦闘単位が小さくなり、個々の戦闘員の獨斷專行が求められたことがある。また、一般社会では、自由主義的風潮が強まったため、軍隊でも絶対的服従を兵士に一方的に求めることは難しくなった。その代わりとして、理解ある服従自覚が兵士に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ところが、この時期、獨斷專行の精神に変化が生じていたのである。従来、獨斷專行は絶対的服従と攻撃精神で成り立っていた軍人精神の下で活用されてきた。第一次世界大戦後、服従は絶対的服従から理解ある服従に変化するが、結果的にそれは定着しなかった。そのため、攻撃精神のみが強調されるようになり、執った行動が攻撃精神に合致しさえすれば、獨斷專行として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そして、滿州事変における朝鮮軍の獨斷專行が賞賛されたことに伴い、獨斷專行は服従に規定されていたものから、より結果を重視するものに変化してしまった。つまり、上官の意図の範囲内で行われることで服従と相反しないとされた、これまでの獨斷專行の精神が軽視されることが次第に多くなっていったのである。攻撃精神の強調と結果重視の風潮が合わさったことで、獨斷專行の変質が加速していったといえる。

キーワード：獨斷專行, 日本陸軍, 帝國陸軍, 滿州事變, 日本陸軍の軍事戦略, 戦術, 指揮思想